

인천일보

홈 > 문화 > 문화종합

경기문화재단연구원, DMZ(비무장지대) 주민 아카데미 개최

👤 김장선 | 🕒 승인 2021.09.15

DMZ 세계유산 등재 기반 구축을 위한

DMZ

주민 아카데미



기간 **2021.9.16 ~ 11.18** (10주간 매주 목요일) 14:00~16:00 (온라인 강좌, 실시간 Q&A)
 신청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ggcf.kr
 대상 연천·파주 DMZ 접경지역 주민, 문화관광해설사 등 일반인



수강 신청

주제	발표자
DMZ 그리고 한국인의 생각	함광복 (한국DMZ연구소 소장)
고지전 기록을 통해 본 DMZ 형성 역사	박동찬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경기 DMZ 접경지의 6·25전쟁	양영조 (전 군사편찬연구소 연구부장)
DMZ 접경 주민의 삶과 사회 변동	한모니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접경지 주민의 삶을 통해 본 DMZ	조봉연 (파주 해마루촌 농촌체험마을 추진위원장)
파주 DMZ와 민통선 지역의 문화재 현황과 가치	신민경 (파주시 중앙도서관 학예연구사)
접경지 한탄강 자연·문화유산의 특별한 가치	최동원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학예연구사)
해외 분단과 대립 지역의 사례를 통해 본 DMZ	심숙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제지문위원회 위원)
DMZ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 교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DMZ의 변화와 활용방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코로나19 유행 및 방역방침 강화에 따라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강의 진행

문의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문화유산팀 031-231-8549 주관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주최 문화재청 경기도 강원도

▲ DMZ 주민 아카데미 홍보 포스터/제공=경기문화재단연구원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은 16~18일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세계 유산 등재 기반 구축을 위한 ‘접경지역 주민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문화재청, 강원도와 함께 DMZ를 UNESCO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반도 DMZ 실태조사단’ 출범 등 DMZ의 문화·생태유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DMZ를 UNESCO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하나로 DMZ와 세계유산에 대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자 주민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됐다.

경기문화재연구소는 한국DMZ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아주대 통일연구소, 통일연구원 소속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온라인 실시간 송출(스트리밍)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지만,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수강생과 강사 간 교감 형성이 가능하다.

이번 아카데미는 경기도 내 DMZ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연천군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DMZ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접수할 수 있다. 경기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gjicp.ggcf.kr)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재는 수강생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10주간 교육 중 70%(7주) 이상을 이수한 경우 수료증과 소정의 기념품이 발급된다.

한편, DMZ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전쟁의 긴장감이 팽팽한 곳이다. 또 약 70년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옛 선조의 문화유산과 천혜의 자연유산이 고스란히 남겨진 공간이기도 하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장선 kjs@incheonilbo.com

김장선
다른기사 보기